| LS증권 Global Market Daily | 미국증시 코멘트 | 2026. 04. 23 |

유가 상승 뒤로한 증시 강세, 기업 실적과 AI 기대심리 고조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휴전 연장 이후, 실적에 주목하며 나타난 기술주 랠리

- 미 증시는 DOW +0.69%, S&P500 +1.05%, NASDAQ +1.64% 상승. 기술주, 에너지 강세, 부동산, 산업재 하락
- 빅테크발 AI·반도체 기대감 확대, 필라델피아반도체 +2.7%. 구글(+2.1%) 클라우드 네스트 행사에서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 자체개발 차세대칩 TPU v8 공개. 또한, 엔비디아(+1.3%) 베라 루빈 GPU 구글 클라우드에 대규모 투입 발표로 강세
- 바클레이즈는 미국과 유럽이 전쟁 이후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 이에 따른 AI 인프라, 방산, 에너지 업종의 수혜, 유럽 투자사이클의 반등국면 진입 전망

국제유가는 상승 WTI $92.5(+3.2%), Brent $101.4(+3.0%)

- 트럼프 대통령은 2 차 회담 일정이 빠르면 오는 금요일에 치뤄질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강경한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내부 지도층 의견 취합은 요원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한 휴전 연장 발표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화물선 3 척 공격, 2 척 나포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상승. 다만,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해 휴전협상 위반은 아니라고 일축. 트럼프는 이란의 여성 시위자 처형 철회가 자신의 요구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여전히 평화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유로 약세 및 달러 유동성 확보 경쟁, 달러인덱스 98.6(+0.2%)

- 영국, 프랑스에 이어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고유가 환경도 유로화 하방 압력
- 미 재무부에서 걸프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 측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고 공식화. 전날 UAE 통화스와프 공식요청은 없었다는 데에서 진전된 형태로, 물밑 협상 시도는 더 많을 것이라 분석. 다만, 미 민주당 측은 재정적자와 물가 부담 상황에서 부유한 국가에 대한 금융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불확실
- 골드만삭스는 달러 강세가 수입물가를 낮춰 연준의 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 있다고 코멘트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TSLA	테슬라	+0.3%	장 마감후 실적발표, 발표직후 시간외 +4% 기록했으나 올해 지출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며, 로보택시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어 하락 반전. 실적은 EPS $0.41로 컨센($0.37) 상회, 매출액 $22.39B로 컨센($22.64B) 소폭 하회. 자동차 매출총이익률(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제외)이 원가 절감 및 ASP 상승에 19.2%로 반등하며 수익성 개선 주도. CAPEX는 +67%YoY 급증. SUV인 모델 Y와 세단인 모델 3의 '저가형 트림' 출시 계획 공식화. 2분기 중 첫 대규모 옵티머스 공장 준비 착수, 연간 100만 대 생산 목표 제시
GEV	GE버노바	+13.8%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상향에 주가 급등. 핵심 사업 부문인 전력(Power) 및 전기화(Electrification)의 매출, 수주, 잉여현금흐름 모두 컨센 상회
IBM	IBM	-1.5%	호실적에도 불구, AI 경쟁 심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성장 둔화 우려로 급락. 매출액 $15.92B(+9%YoY)로 컨센 상회했으나 전분기(+12.2%) 대비 성장세 둔화됨
NOW	서비스나우	+2.9%	장 마감후 실적발표, 시간외 -12%대 하락. 연간조정 구독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컨센 하회한 영향. 사측은 최근 기업 인수 영향 때문이며 '27년 정상화 전망이라 설명
LRCX	램리서치	+2.8%	장 마감후 실적발표, 시간외 +2%대 상승. 컨센 상회하는 실적 및 가이던스 발표에 주가 강세. 램리서치 호실적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주 동반 강세
TXN	텍사스인스트루먼트	+1.4%	장 마감후 실적발표, 시간외 +10%대 상승. 1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가 컨센 큰 폭으로 상회한 영향. 특히 아날로그 부문 매출이 +22%YoY 성장하며 호실적 견인
BA	보잉	+5.5%	컨센 상회한 실적에 주가 강세. 매출액 $22.22B(+14%YoY)로 컨센($21.91B) 상회. EPS는 -$0.20로 컨센(-$0.67) 대비 손실 폭 크게 축소. 수주잔고는 사상 최대인 $695B 기록